

HOME (/) > 지역뉴스 (/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2) > 청주시 (/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28)

직지코리아 전시도록 대영도서관 소장

손혜철 | 승인 2017.03.02





[불교공뉴스-청주시] 2016직지코리아국제페스티벌 전시도록이 대영도서관(The British Library)에서 소장돼 화제가 되고 있다.

2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승훈)은 '2016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기획전 '직지, 금빛 씨앗' 도록이 영국 대영도서관에 공식 소장됐다고 밝혔다.

영국국립도서관인 대영도서관은 1억5천만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회민주주의 원전인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세계 최고 목판서적 금강경, 구텐베르크 성경 두권 등 중요한 문서를 소장하고 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다.

대영도서관측은 직지의 문화사적 의미와 기록유산의 국제적 플랫폼인 직지코리아에 대한 성과에 대한 설명 듣고 소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대영도서관의 직지코리아 전시도록 소장은 문화외교적 성과이며 직지 세계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2016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수석큐레이터 김승민씨가 거주하던 영국으로 돌아가 개인적인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해외 홍보 활동을 추진했다. 김 큐레이터는 오랜 친분이 있는 헤미쉬 토드(Hamish Todd) 대영도서관(The British Library) 아시아 도서 수

집 총책임자(Head of East Asian Collections)와 면담해 직지의 문화사적 의미와 기록유산의 국제 플랫폼인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에 대한 성과를 설명했다. 그 결과 '직지, 금빛 씨앗' 기획전 도록을 전달하고 공식소장을 결정했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김승민 큐레이터는 "헤미쉬 토드는 직지코리아 전시도록을 보고 '멋지다'고 좋아하며 이 도록을 개인적으로도 소장하고 싶다고 밝혔다"며 "특히 도록에 소개된 직지 파빌리온과 직지월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헤미쉬 토드 대영도서관 아시아 도서 수집 총책임자는 "전 세계인들이 볼 수 있도록 직지페스티벌의 전시도록을 우리 컬렉션에 추가하게 돼 너무 기쁘다"며 "인쇄된 책의 소중한 기억을 알려려는 직지페스티벌과 김승민 큐레이터가 직지와 한국의 금속활자 발전의 역사를 알려려 노력한 것에 정말 가슴속깊이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대영도서관(The British Library)은 1억5천만권의 도서를 보유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다. 특히 세계 최고 목판서적 금강경과 구텐베르그 성경 두권, 의회민주주의의 원전인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1215년 영국 귀족들이 국왕 존의 잘못된 정치에 분노해 왕의 권위를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왕에게 강요해 받은 법률 문서)도 소장하는 등 권위 있는 도서관이다.

이와 함께 대영박물관(British Museum)에도 관장에게 '직지, 금빛 씨앗' 기획전 도록이 전달된 상태다.

김호일 사무총장은 "인류의 패러다임을 바꾼 지식의 공유와 확산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던 주제 전시 도록이 대영도서관에 소장된 것은 문화외교적으로나 직지의 세계화 부분에서 큰 쾌거"라며 "내년(2018년) 2회 행사 개최를 위한 사전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직지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드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26만명이 방문해 성공적인 행사로 주목받았던 직지코리아국제페스티벌은 올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상설사무국이 설치됐다. 내년 2회를 맞이하는 직지코리아국제페스티벌은 예산을 20억 증액해 총 60억 규모의 행사로 추진하고 있다.

직지코리아의 킬러콘텐츠였던 주제전시 '직지, 금빛 씨앗'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의 창조적 가치를 재조명하며 회화, 사진, 미디어아트, 패션, 그래픽, VR까지 다양한 예술 분야의 융복합적 전시를 선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